

# 黃帝內經斗 周易의 中心思想 研究

慶熙大學校 韓醫學科 原典醫史學校室

金東主, 洪元禎

A Comparative Study on the Central Idea of  
Hwang Je Nae Kyong and Chuyok.

Kim, Dong Joo. O. M. D., Hong, Won-sik., O. M. D., Ph. D.

Department of Classics and Medical Histor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 BSTRACT

Chuyök and Naekyöng which are the foundations for oriental philosophy and oriental medicine respectively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Oriental ideas for several thousand years. On this study is focused on the comparative study about the two. and the results are as follows:

- Chuyök and Naekyöng agree with respect to the relationship between Nature and Man. They both insist that everything should come into being through collabora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and that Man is the noblest among them.
- Though Chuyök and Naekyöng agree in regard to the authority of Man's nobility, the one stands on the opinion that Man is noble because of 'Tao'(道), while the other maintains that Man is precious because he is created and changed according to the principle of the Universe.

3. There is a slight difference between Chuyök and Naekyöng in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of the Chinese cosmogony. Chuyök explains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everything on the basis of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and make no concrete mention of the five elements of the Chinese cosmogony. While Naekyöng applies the principle of Yin and Yang and the five elements of the Chinese cosmogony to the human body.
4. Though Chuyök contains little knowledge of the inside of the human body in the anatomical matters, it includes some informations of the outside of the human body. But the basic physiological informations had already existed at that time.
5. Regarding the way of life cultivation, Chuyök and Naekyöng concurs. The two books advise to avoid unsuitable meal, overdrinking, inappropriate residence and so forth for the sake of good health. They make much of the mental harmony and maintain the accommodation to the change of Nature to keep a sound mind and body.

## I. 序 論

東洋思想의 基本이 되는 것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三墳之書라 하여 周易 內經 神農本草經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神農本草經은 藥物에 關하여 言及한 冊이요 周易은 未來에 對한 不확실성을 연구하기 위한 것이요 內經은 人間의 無病長壽를 연구한 것이다.

人間은 옛부터 健康과 疾病에 對해 깊은 關心을 가지고 있었다. 書傳 洪範에 “五福은 一曰壽 二曰富 三曰康寧 四曰攸好德 五曰考終命이니라”하고 註에서 “人有壽而後 能享諸福 故 壽先之 富者 有稟祿也 康寧者 無患難也 攸好德者 樂其道也 考終命者 順受其正也”라 하였다. 또 六極은 “一曰凶短折 二曰疾 三曰憂 四曰貧 五曰惡 六曰弱이니라”라 하였다. 이 것을 보면 이 時代에 이미 健康과 疾病에 對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無病 長壽를 敎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努力으로 생겨난 여러가지 가운데서 黃帝內經이 만들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內經은 現存하는 醫書 가운데 最初로 만들어진 綜合的 醫書이다. 물론 內經 以前에도 醫書가 있었으나, 모두가 短篇的인 것으로 內經을 韓醫學의 最古의 古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周易은 東洋思想의 基本이 되는 冊이다. 흔히들 周易을 占書로서 알고 있으나, 周易은 陰陽五行과 八卦로서 事物과 自然現象의 變化를 관찰하여 人間의 일을 說明한 冊이다. 그러므로 東洋의 모든 學問은 根源을 모두 周易에 두고 있으니 天文 風水地理說 政治 文化 曆法 等이다. 東洋醫學도 陰陽五行의 理致와 八卦의

---

註 1) 金 赫濟校閱 原本集註書傳 서울 明文堂 1987 p269

註 2) 前掲書 p269

變化를 應用하여 人體의 變化를 說明하고 있다 故로 周易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다. 張介賓은 張氏類經圖翼에서 “天地之易 外易也 身心之易 內易也”라고 까지 하였다.

故로 韓醫學을 연구 하는데 있어서 周易에 對한 연구가 없어서는 안될 것이다.

이에 本 연구는 三墳之書 가운데 周易과 內經의 中心思想을 서로 비교 연구하여 韓醫學을 理解하는데 기여 하고자 한다.



---

註 3) 張 介賓 張氏類經圖翼 書苑堂 p241

## II. 黃帝內經의 概觀

黃帝內經은 略稱하여 內經이라고 부르는데 크게 素問과 靈樞의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이 冊의 內容은 大部分 黃帝와 그의 臣下인 岐伯 雷公 鬼臾區 등이 醫學에 對해 問答한 것을 기록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後世 사람들이 中國의 始祖라고 하는 黃帝와 臣下들의 이름을 僞托하여 冊의 가치를 높이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黃帝內經의 著作年代는 確실하지 않으나 戰國時代에서 秦漢時代의 사이로 보고 있다. 또한 確실한 것은 이 冊의 內容으로 볼 때 一時에 一人의 作品이 아니라는 것이다.

內經의 內容에는 人體의 生理 病理에 對한 基本的인 理論에서 부터 疾病에 對한 說明 診斷 治療 養生 鍼灸 등으로 매우 다양하고 또 상세하게 記載하고 있다. 이러한 基本的인 理論이나 診斷 治療의 方法들은 그 以前까지의 모든 醫學知識의 總結이며 以後 韓醫學 理論의 原理가 되어 왔다.

金元 時代에 이르러 各自의 임상경험을 중심으로 醫學의 流派가 형성되어 韓醫學 發展의 新起元을 이루었지만 基本的인 理論은 內經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 없다. 診斷과 治療의 方法은 金元 時代 以後에 많은 發展이 있었지만 아직도 內經은 상당한 意義를 가지고 있으며 中心思想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內經에 中心思想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天人合一 思想과 陰陽五行 思想을 들 수 있다.

天人合一 思想은 宇宙의 構成原理와 人體의 構成原理를 同一하게 보고 宇宙의 法則에 準하여 生理 病理및 治療의 法則을 규정하고 또한 自然의 法則에 順應해야 無病 長壽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人間과 自然의 關係에 對한 理論은 素問의 四氣調神大論 生氣通天論 陰陽應象大論 異法方宜論 및 藏氣法時論 등에 나타나 있다. 이것을 보면 生物의 生存과

發展은 모두가 天地 卽 宇宙의 變化에 依해서 影響을 받고 있으며 人間도 例外가 아니어서 人間과 自然界는 不可分의 關係에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면 寶命全形論에 “天覆地載 萬物番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sup>4)</sup>이라 하여서 人間은 自然界의 作用에 依하여서 生命이 存在하고 四季의 生長收藏하는 自然規律에 順應하면서 그 生命活動을 維持한다고 하였다.

病理的인 面에서는 外部의 氣候變化와 生活環境을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다. 靈樞의 百病始生篇에 “風雨寒熱 不得虛 邪不能獨傷人 卒然逢疾風暴雨而 不病者 蓋無虛 故邪不能獨傷人”<sup>5)</sup>이라 하였으니 外部의 氣候變化가 疾病을 일으키는 것은 人體가 虛弱하고 自然의 變化에 順應하지 않을때 라고 하였다.

生活環境은 素問 異法方宜論에 地域에 따라서 發病하는 病의 종류와 地域에 따라서 治療方法이 서로 다른 것을 나타내고 있다.

陰陽五行 思想은 陰陽의 對立과 相互作用에 依해서 人體의 生理 病理 및 治療法을 說明하고 또한 五行의 相生 相克 關係로 人體를 說明하고 있다.

陰陽思想의 基本은 陰陽이란 絶對的인 것이 아니고 相對的인 것이며 어느 하나의 事物을 고정적으로 代表하는 것이 아니고 事物의 對立面的 變化에 따라서 變하는 것이다. 모든 事物에 陰陽의 二面이 있을 뿐 아니라 陰과 陽의 内部에 또한 陰陽의 對立을 內包하고 있다. 또한 陰陽의 相互 對立 關係는 不變이 아니고 相互間의 作用에 依해서 끊임없이 消長進退의 現象이 나타난다 이것이 事物의 運動發展과 變化의 과정이다.

五行은 木火土金水의 五元素를 사용하여 自然現象을 說明한 것이다 五行에는 相生과 相克의 關係가 있어서 定常的인 경우에는 平衡을 유지 할 수 있지만 五行 사이에 盛衰가 생기면 平衡이 파괴되어서 異狀狀態가 出現한다.

---

註 4) 洪 元植 編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1974 : p73

註 5) 上揭書 p358

또한 五行에는 各各 歸類하는 것이 있으니 이것은 自然現象을 관찰한 것에서 시작하여 自然現象을 人體의 五臟 및 기타의 關係部分에 相對적으로 結付 시킨 것이다. 自然現象은 各 季節의 특징에 따라 五行으로 배치하고 人體에서는 五臟을 基本으로 하여 五行에 各各 배치 했으니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天有四時五行 以生長收藏 以生寒暑燥濕風 人有五臟 化生喜怒悲憂恐”<sup>6)</sup>이라 하였다.



---

註 6) 上掲書 註19

### III. 周易의 概觀

#### 1) 周易의 意味

周易에 對한 해석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널리 받아들여지는 것을 들면 다음과 같다.

‘周’字에는 周易이 만들어지고 使用된 周나라라는 時間的 名詞로서의 뜻이 있으며 두루두루 卽 普遍的이란 意味가 있다. 또한 時間뿐만이 아닌 空間을 包含한 上下四方 卽 六合을 나타내는 뜻도 포함하는 用語이다.”

‘易’字에 對한 뜻은 여러가지가 있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 ‘易’이란 바꾼다 또는 바뀐다는 뜻을 가졌으니 글자 그대로 해석 하는 것이다. 卽 天地自然의 現象이나 人間의 運命은 一定不變한 것이 아니라 항상 時間과 空間에 따라서 變하는데 이러한 原理를 說明한 것이 周易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周易은 天地自然과 人間事의 變化와 變易을 說明한 冊이라는 뜻이다.

둘째로 日月說이 있다. 이것은 易이라는 글자가 ‘日’과 ‘月’의 會意文字에서 부터 나왔다는 說이다. ‘日’은 陽을 뜻하고 ‘月’은 陰을 나타내니 自然과 人間事의 變化가 모두 陰陽의 變化와 造化로 이루어졌다는 뜻이다.

세번째로 觀測說이 있으니 이것은 ‘易’이란 字를 ‘日’과 ‘勿’의 會意文字로 풀이 하는 것이다. 이것은 무슨 일을 하더라도 太陽을 거역하지 말라는 뜻이다. 여기서 太陽이란 自然의 攝理를 말하는 것이니 自然의 攝理에 逆行하지 말라는 뜻이다.

마지막으로 도마뱀 說이 있으니 이것은 易이란 글자를 도마뱀의 象形文字로 해석한 것이다. 이것은 도마뱀이 保護色을 바꾸듯이 自然現象이나 人間事도 變

---

註 7) 周易講義 p1

化無常 하다는 理論에 근거한 說이다.”

또한 ‘易’에는 세가지 뜻이 있으니 簡易, 變易, 不易이다.”簡易는 그 原理를 알고나면 간단하면서도 쉽다는 뜻이고 變易이라 함은 變하고 바뀐다는 뜻이고 不易이라 함은 天地 사이의 온갖 現象은 움직이고 멈추는데 一定不變의 法測과 作用이 있다.

以上の 것을 綜合해 보면 ‘易’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첫째, 바꾸나 卽 變化無常의 意味

둘째, 日月(日+月)이니 곧 宇宙의 原理를 말한다.

셋째, 쉽다 卽 相對的으로 原理를 알면 쉽다.

넷째, 상대적이니 두루 바꾸어 본다.



---

註 8) 金 敬琢 譯 新完譯周易 서울 明文堂 1986 pp18~19

註 9) 南 晩星 譯解 正本新譯 四書五經 周易 부산 青木文化社 1986 p16

## 2) 周易의 起原

周易이 언제 누구에 依해서 만들어 졌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나 이것을 現在 확실하게 밝힐수는 없다 전하는 바에 依하면 周易 以前에 連山易 歸藏易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現在 전해지지 않고 있다. 여기서 連山氏는 神農氏의 별칭이고 歸藏은 黃帝의 별칭이다.<sup>10)</sup> 그러므로 連山易은 神農氏 時代의 易이요 歸藏易은 黃帝時代의 易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神農氏와 黃帝가 모두 전설상의 人物이므로 확실하다고는 할 수 없고 다만 이러한 것들이 周易의 母體가 된다고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

흔히들 周易이라고 하면 周나라 文王때의 易을 말하고 있다. 周易의 著者에 對해서는 여러가지 說이 있으니 다음과 같다.

첫째는 王弼의 說로 八卦와 六十四卦를 伏羲氏가 創案 했다는 說이다.

둘째는 司馬遷의 說로 伏羲氏가 八卦를 創案하고 文王이 卦辭와 爻辭를 完成 했다는 說이다.

마지막으로 卦辭는 文王이 지었고 爻辭는 周公이 十翼은 孔子가 지었다는 說이다.<sup>11)</sup>

이것을 살펴보면 周易과 文王과는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尚書에 보면 文王時代 以前에도 龜甲을 불에 구워서 갈라지는 모양으로 占을 쳤다는 기록이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文王時代 以前에도 이미 占卜行爲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때 周易이 어느 한 사람의 獨創에 依해서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文王이 지었다고 하더라도 그 以前의 것을 補完한 정도로 추측할 수 있다. 이것은 다음에 나오는 周易이 이루어진

註 10) 南 晩星 譯解 正本新譯 四書五經 周易 부산 青木文化社 1986 p16

註 11) 金 敬琢 譯 新完譯周易 서울 明文堂 1986 p20

時期와 비교할 때도 그렇다.

다음으로 周易이 이루어진 時期는 언제인가? 이 문제에 對해서 現在 精確한 解答은 알기 어렵지만 周易의 文章을 引用해서 알아볼 수 있으니 다음과 같다.

“噬乾肉 得金矢” (噬嗑卦 九四 爻辭)<sup>12)</sup>

마른 고기를 씹다가 金矢을 얻다.

“噬乾肉 得黃金” (噬嗑卦 九五 爻辭)<sup>13)</sup>

마른 고기를 씹다가 黃金을 얻다.

이것을 보면 周易이 이루어진 時期는 狩獵時代이며 활과 화살을 사용하고 있었고 또한 金屬을 사용한 時代임을 알 수 있다.

또한 “虎視眈眈 其欲逐逐” (頤卦 六四 爻辭)<sup>14)</sup>

호랑이가 보고있다 달아나자.

이것을 보면 狩獵을 해도 猛獸에게는 怯을 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니 狩獵時代 初期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網 또는 罟와 같은 字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고기를 잡을 때 그물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利涉大川 또는 不利涉大川의 用語가 자주 나오지만 舟나 楫과 같은 字가 나오지 않으니 아직도 배가 나오지 않은 時代임을 알 수가 있다.

“需于血 出自穴”<sup>15)</sup>이라는 글로 보아서 穴居生活을 하던 時期이며 또한 “童牛之牯”(大畜卦) 即 송아지의 고삐나 “黃豕之牙”(大畜卦) 喪羊于易(大壯卦)와 같은 家畜의 이름을 보면 牧畜이 行해지던 時代임을 알 수 있다.

以上을 綜合하면 周易이 이루어진 時期는 青銅器 時代로 볼 수가 있다.

註 12) 世昌書館 編輯部 正本周易集註 서울 世昌書館 檀紀4285 p130

註 13) 前掲書 p131

註 14) 前掲書 p160

註 15) 上掲書 p48

### 3) 周易의 構成

周易의 內容을 살펴보면 周易은 크게 經文과 經文을 補充하고 解說한 十翼으로 되어있다.

周易의 經文이란 六十四卦의 卦辭와 爻辭를 말하는 것이니 周易의 첫번째 卦인 乾卦로 부터 마지막 卦인 火水未濟卦에 이르는 六十四卦의 각각의 卦辭와 爻辭를 經文 이라고 한다.

十翼이란 周易의 理解를 돕기 위해 經文을 補充하고 해석한 것이다 翼이란 字를 使用한 것은 마치 새가 날때 날개가 돕는 것과 같이 經文의 理解를 돕는다는 뜻으로 使用한 것이다. 이것이 十個로 되어 있다고 해서 十翼이란 이름을 붙였다 또한 傳해 내려온 것이라 해서 十傳이라고도 한다.

十翼을 자세히 說明하면 다음과 같다.

- ① 象傳上下一象은 斷과 같으니 經文의 卦辭를 判斷 또는 斷定 한다는 뜻이다.
- ② 象傳上下一象은 事物의 動作을 본 뜬다는 것이다. 大象과 小象으로 되어 있으니 大象은 上卦와 下卦의 關係를 說明한 것이고 小象은 各卦의 爻辭를 해석한 것이다.
- ③ 文言傳一乾卦와 坤卦에 관한 諸家의 學說 가운데서 뽑아낸 것이라고 하며 儒家의 論理說이 대부분이다.
- ④ 繫辭傳 上下一繫는 묶는다는 뜻이니 卦辭와 爻辭를 묶어서 해석한 것이다.
- ⑤ 說卦傳一占치는 사람을 위해 卦를 說明한 것으로 卦와 爻의 變化는 天地神明의 意志가 계시 한다고 생각한 것이다.
- ⑥ 序卦傳一六十四卦의 순서를 계통적으로 意味를 붙인 것이다.
- ⑦ 雜卦傳一六十四卦를 두개의 卦로 묶어서 서로 비교하여 그 意義와 特色을 說明한 것이다.

以上の 上下篇을 合해서 열 가지를 孔子의 所作이라고 하나 이것은 現在 확실히 알지 못하지만 否定的으로 받아 들여지고 있다.



#### 4) 八卦의 解釋

各個의 卦는 六個의 爻로 이루어져 있다. 爻란 陰陽을 표시하는 最小의 단 위이다. 陽은 一로 陰은 --로 표시한다. 爻가 셋 거듭하면 三三三와 같은 小成卦가 되고 小成卦가 두번 거듭하면 大成卦 卽 八卦과 된다.

八卦의 起源에 對한 說은 여러가지가 있으나 그 가운데 周易에 있는 八卦의 起源은 繫辭 下篇에 다음과 같이 나와 있다.

“古者 包犧氏之 王天下也 仰則觀象於天 俯則觀法於地 觀鳥獸之文 與地之宜 近 取諸身 遠取諸物 於是 始作八卦 以通神明之德 以類萬物之情”<sup>16)</sup> 이것을 볼때 八卦의 起源은 包犧氏 卽 伏犧氏가 創案했다는 說과 일치하고 八卦는 天地와 人間 動物과 事物을 나타내고 萬物의 情을 類推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로 使用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爻를 해석하는 순서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 가는 것이니 初爻 二爻 三爻 …… 上爻로 표시한다. 또 爻의 순서와 陰陽의 구별을 붙여서 初九(初六) 九二(六二) 또 上九(上六)으로 표시 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使用 되고 있다. 이것은 陽은 九 陰은 六으로 대표하고 있기 때문이다.

八卦의 各爻는 또 사람의 社會的 地位와 人身에 맞추어서 다음과 같은 意味가 있다.

上爻—黃帝 頭

五爻—君 胸

四爻—公卿 腹

三爻—大夫 股

二爻—士 脛

註 16) 前掲書 p392

初爻—庶人 下脚

또한 八卦의 各爻는 陰陽에 따라 五臟六腑를 다음과 같이 배속 시킬수 있다.

陰의 경우

上六 次 — 肺

六五 次 — 心

六四 次 — 脾

六三 次 — 肝

六二 次 — 腎

初六 次 — 命門<sup>17)</sup>

陽의 경우

上九 當—三焦

九五 當—胃

九四 當—膽

九三 當—小腸

九二 當—大腸

初九 當—膀胱<sup>18)</sup>

또한 空間과 時間的인 意味도 包含하고 있으니 이것을 乾卦에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上爻—亢龍      높은 곳

五爻—飛龍在天    하늘

註 17) 前掲書 p243

註 18) 前掲書 p243

四爻—躍龍 물과 半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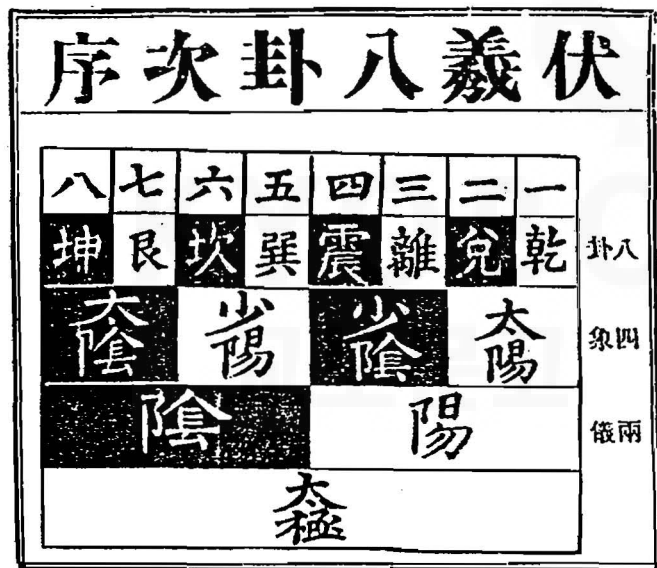
三爻—君子揚若

二爻—見龍在田 들판

初爻—潛龍 물속

이것을 보면 물속에서 부터 하늘 높은 곳까지 올라가는 空間的 時間的 意味가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八卦를 그림으로 표시한 伏羲 八卦 次序圖 伏羲 八卦 方位圖 文王 八卦 次書圖 文王 八卦 方位圖가 있으니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圖1] 伏羲 八卦 次序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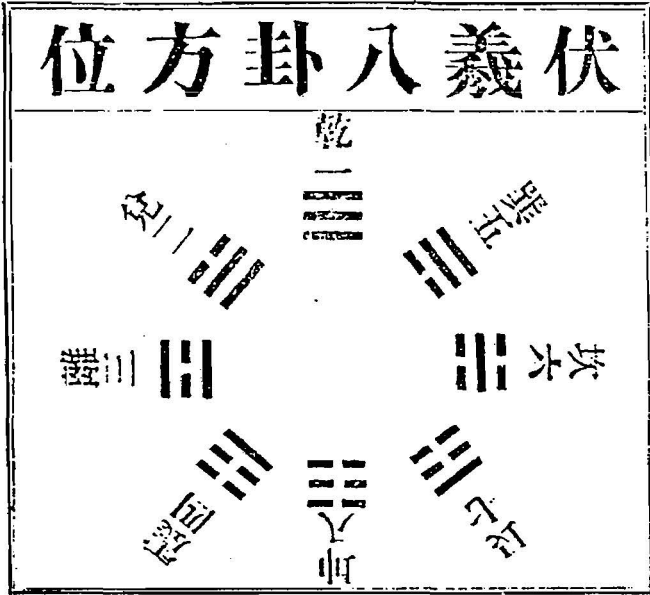
위 그림의 뜻은 太極이 兩儀를 낳았으나 陰陽의 가운데 太極의 因子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이 八卦 全體 또는 그 以上の 모든 것에 太極이 存在하고 있다. 따라서 宇宙萬物에 빠짐없이 太極의 原理가 들어 있다. 또한 이것은 陰 가운데 陽이 들어 있고 陽 가운데 陰이 들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陰과 陽이 分化해서 萬物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意味하고 있다.

# 序次卦八王文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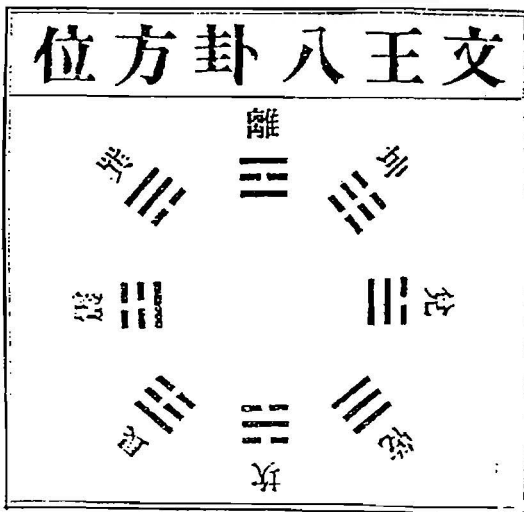
〔圖 2〕 文王 八卦 次序圖

文王 八卦 次序圖는 人間生活과 관계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伏羲八卦 次序圖와 比較하면 伏羲八卦는 大自然을 背景으로 했다고 한다면 文王 八卦 次序는 人事的인 것을 背景으로 하였다고 할 수 있다. 時間的인 面에서 보면 伏羲氏의 時代는 아직도 未開한 社會 였으나 文王의 時代는 어느 정도 人知가 發達이 되었을 때이다. 그러므로 人事的인 것 가운데서도 生育하는 父母子女의 관계로서 理致를 나타내고 있다.



[圖3] 伏羲八卦方位圖

伏羲八卦方位圖는 大自然의 運行하는 形態를 그대로 內包하고 있다. 即 天地—乾坤—가 相對로 定位에 있고 日月—離坎—이 東西로 相應하여 있고 또 順行과 逆行을 이루는 것은 八卦 自體內에 太極이 들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서로 相應하는 小成卦는 陰陽으로 構成되어 있고 相互 그림자와 같이 配合되어 있다. 또 東西南北이 定立되어 있으니 方位 또한 大自然의 표방이라고 하겠다.



[圖4] 文王八卦方位圖

伏羲 八卦는 단조로운 圖形인데 比하여 文王 八卦는 後天의 복잡한 人事의 表象을 角으로 表示했다.

以上の 모든 것과 八卦에 각각 속하는 바를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표1〉

卦名	乾	兌	離	震	巽	坎	艮	坤
卦形	☰	☱	☲	☳	☴	☵	☶	☷
卦象	乾三連	兌上缺	離中虛	震仰盂	巽下斷	坎中滿	艮覆碗	坤六斷
形態	天	澤	火	雷	風	水	山	地
人間	父	少女	中女	長男	長女	中男	少男	母
方位	西北	西	南	東	東南	北	東北	西南
性情	健康	喜	熱	決	入	智	止	順
動物	馬	羊	雉	龍	鷄	猪	犬	牛
身體	首	口	目	足	股	耳	手	腹

身體가 八卦에 歸類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乾爲首 陽尊居上也 坤爲腹 陰廣 容物也

坎爲耳 陽聰於內也 離爲目 陽明 在外也

兌爲口 折開於上也 巽爲股 兩垂 而下也

艮爲手 陽居於前也 震爲足 剛動 在下也<sup>19)</sup>

註 19) 上掲書 p243

## IV, 黃帝 內經과 周易의 思想比較

### 1) 自然과 人間의 相關性

人間은 生物의 一種으로서 自然現象의 變化에 對하여 밀접한 關係를 가지고 있다. 內經에서는 宇宙와 人體의 構成原理를 同一하게 여기고 있다. 靈樞 邪客編에 나타난 人身 少天地 說이 그것이니 卽 “黃帝 問於 伯高 曰 願聞人之肢節以應天地 奈何” “天圓地方 人頭圓 足方以應之 天有日月 人有兩目 地有九州 人有九竅 天有風雨 人有喜怒 天有雷電 人有音聲 天有四時 人有四肢 天有五音 人有五聲 天有六律 人有六腑 天有冬夏 人有寒熱 天有十日 人有手十指 辰有十二 人有足十指 莖垂以應之 女子不足二節 以包人形 天有陰陽 人有夫妻 歲有三百六十五日 人有三百六十五節 地有高山 人有肩膝 地有深谷 人有腋膕 地有十二經水 人有十二經 地有泉脈 人有衛氣 地有草蕒 人有毫毛 天有晝夜 人有臥起 天有列星 人有牙齒 地有小山 人有小節 地有山石 人有高骨 地有材木 人有莫筋 地有聚邑 人有肉 歲有十二月 人有十二節 地有四時 不生草 人有無子 比人與天地 相應也”<sup>20)</sup>라고 하여 天地自然과 人間이 서로 밀접한 關係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또 素問 六微旨大論에서는 “升己而降 降者謂天 降己而升 升者謂地 天氣下降 氣流于地 地氣上升 氣騰于天 故 高下相召 升降相因 而變作矣”<sup>21)</sup>라 하여 天地의 氣가 升降하는 相互作用으로 變化가 나타 난다고 하였다. 天元紀大論에서는 “神在天爲風 在地爲木 在天爲熱 在地爲火 在天爲濕 在地爲土 在天爲燥 在地爲金 在天爲寒 在地爲水 故 在天爲氣 在地成形 形氣相感而 化生萬物矣”<sup>22)</sup>라 하여 天地의 氣와 形이 서로

註 20) 洪 元植 編 黃帝內經 서울 高文社 1974 pp361~362

註 21) 前掲書 p184

註 22) 前掲書 p169

感應하여 變化가 생기고 그 變化 가운데서 萬物이 化生한다고 하였다. 또 素問 寶命全形論에는 “天覆地載 萬物悉備 莫貴於人 人以天地之氣生 四時之法成”<sup>23)</sup>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보면 內經에서 주장하는 生物은 天의 氣와 地의 形이 서로 感應 하여서 생기며 또한 天地自然界에 依해서 影響을 받고 있으며 人間도 마찬가지로 自然과 不可分の 關係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內經의 주장이다.

다음으로 周易에 나타난 人間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否卦에 “否之匪人”<sup>24)</sup>이라 하고 그 註에 “天地交而 萬物 生於中 然後 三才備 人爲最靈 故 爲萬物之首 凡生天地之中者 皆人道也 天地不交則 不生萬物 是無人道 故曰匪人”<sup>25)</sup> 또 같은 匪卦에 “天地不交而 萬物不通也”<sup>26)</sup>라 하고 註에 “天地之氣 不交則 萬物 無生成之理”<sup>27)</sup>라 하였다.

또한 咸卦에 “柔上而剛下 二氣感應”<sup>28)</sup>이라 하고 또 “天地感而 萬物化生”<sup>29)</sup>이라 하였으며 繫辭下編에서는 “天地之 大德曰 生”<sup>30)</sup>이라 하였다. 以上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周易의 人間觀은 天地의 氣가 서로 感應하여서 萬物이 생기는 가운데서 人間이 생겨나지만 人間은 人間이 行하여야 할 道理가 있기 때문에 貴重하다고 하고 있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自然과 人間の 關係에 對하여 內經과 周易에서 모두 天地가 서로 感應하여 萬物이 化生하고 그 中에서 人間이 가장 尊貴하다고 하는 觀點에서는 一致한다. 그러나 周易에서는 人間이 行하여야 할 基本的인 道가 있어서 尊貴하다고하고 內經에서는 宇宙自然의 理致로 生成되고 變化하므로 尊貴하다고 하는 觀點에서 차이가 있다.

- 
- 註 23) 前掲書 p73  
 註 24) 前掲書 p83  
 註 25) 前掲書 p83  
 註 26) 前掲書 p84  
 註 27) 前掲書 p84  
 註 28) 前掲書 p177  
 註 29) 前掲書 p178  
 註 30) 前掲書 p391

## 2) 陰陽五行說의 比較

陰陽五行說의 起原을 現在 明白하게 밝힐 수 없지만 간단하게 定義한다면 古代에 宇宙와 人間社會의 모든 現象을 陰陽의 消長에 依한 相關關係로 說明한 것이 陰陽說이며 陰陽에서 發展하여 事物의 生成消滅을 木火土金水라는 다섯개의 상징으로 나타낸 것이 五行이라고 할 수 있다.

周易에서는 陰陽과 五行을 직접적으로 說明한 부분이 없지만 陰陽과 五行으로 根本를 삼고 있으니 太極圖說에 나타난 陰陽五行의 起原은 다음과 같다.

“無極而太極 太極動而生陽 動極而靜 靜而生陰 靜極復動 一動一靜 互爲其根 分陰分陽 兩儀立焉 陽變陰合 而生水火木金土 五氣順布 四時行焉 五行一陰陽也 陰陽一太極也 太極本無極也 五行之生也 各一其性 無極之眞 二五之精 妙合而凝 乾道成男 坤道成女 二氣交感 化生萬物 萬物生生而 變化無窮焉”<sup>31)</sup>이라 하여 太極에서 陰陽이 나오고 陰陽의 變化에서 五行이 나오고 陰陽과 五行의 分化 發展에 依해서 萬物이 생겨 난다고 하였다.

五行의 起原은 書傳 大禹謨에 “水火木金土穀”<sup>32)</sup>이라 되어 있고 洪範에서는 穀이 빠지고 現行的 火水木金土만 있는 것으로 보아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五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周易의 乾卦에 “乾은 元코 亨코 利코 貞하니라”<sup>33)</sup>하였고 그 註에 依하면 元亨利貞에는 다음과 같은 뜻이 있다.

“元者 生物之始 天地之德 莫先於此 故 於時爲春 於人則爲仁 衆善之長也.

亨者 生物之通 物至於此 莫善於美 故 於時爲夏 於人則爲禮 衆美之會也.

利者 生物之遂 物得各宜 不相妨害 故 於時爲秋 於人則爲義而 得其分之和.

貞者 生物之成 實理具備 隨在各足 故 於時爲冬 於人則爲智而 衆事之終”<sup>34)</sup>

註 31) 黃 堅 編 懸吐備旨 古文眞寶後集 서울 明文堂 1979 p352~353

註 32) 前揭書 p37

註 33) 前揭書 p1

註 34) 前揭書 p8

이것을 보면 元亨利貞의 思想中에 五行의 概念이 완전한 形態는 아닐지라도 이미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때 五行은 처음부터 지금과 같은 形態가 아니고 六個 또는 四個의 形態로 되어 있다가 지금과 같은 形態가 되었음을 알 수 있다.

陰陽說도 周易의 其本이 되지만 周易에서 직접 陰陽에 對하여 說明한 부분은 많지 않다. 坤卦 初六의 註에 “陽主生 陰主殺”<sup>35)</sup>이라 하였고 繫辭傳에 “一陰一陽之 謂道”<sup>36)</sup>라 하고 그 註에 陰陽 迭運者 氣也 其理則 所謂道”<sup>37)</sup>라 하였다. 또 “生生之 謂易”<sup>38)</sup>이라 하고 그 註에서 “陽生陰 陰生陽 其變 無窮也”<sup>39)</sup>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周易의 陰陽觀은 陰에서 陽이 나오고 陽에서 陰이 나오며 그 變化에서 萬物이 생겨난다고 한 것임을 알 수 있다.

內經에 나타난 陰陽의 概念을 살펴보면 陰陽이 서로 對立하여서 調化를 이룰 때 人體에 疾病이 없는 狀態가 된다고 하였다. 陰陽應象大論에 “陰勝則陽病 陽勝則陰病 陽勝則熱 陰勝則寒”<sup>40)</sup>이라 하였으니 陰陽의 調化가 必要함을 역설 하였다. 四氣調神大論에서 “夫四時陰陽者 萬物之根本也 所以聖人 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從其根……從陰陽則生 逆之則死 從之則治 逆之則亂”<sup>41)</sup>이라 하여 陰陽의 理致를 治療에 사용하고 있다.

內經에 나타난 五行은 五行의 相生 相克과 歸類方法으로 治療의 診斷 治療 生理 病理 等を 說明한 것이 大部分이다. 물론 周易에 陰陽五行의 思想을 說明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內經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應用方法은 없다. 잘

---

註 35) 前掲書 p24

註 36) 前掲書 p362

註 37) 前掲書 p362

註 38) 前掲書 p363

註 39) 上掲書 p363

註 40) 前掲書 p19

註 41) 上掲書 p10~11

알고 있는 바와 같이 五行의 氣가 有餘不足으로 因하여 疾病이 생기고 또한 相生 相克의 關係를 이용해서 治療를 한다는 것이 內經의 思想이다.

以上에서 본 바와 같이 內經과 周易에 나타난 陰陽 五行의 思想은 根本的으로서는 차이가 없다. 다만 周易에서는 陰陽을 根幹으로 하여서 事物의 變化와 發展을 說明하고 五行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言及이 없는데 比해 內經에서는 陰陽 五行說을 기본 理論으로 하여 人體에 應用하고 있다.



### 3) 周易에 나타난 解剖學的 知識

周易에서는 人體의 名稱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이것을 통해서 周易이 만들거진 때의 解剖學的 知識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周易에 나오는 人體의 名稱에서 作用이나 生理的인 說明이 具體的으로 나타나는 것은 頤卦로서 頤의 形態와 作用을 나타내고 있다. 頤卦를 八卦로 표시하면 ☶가 되는데 八卦의 形象이 속이 빈 것이 口와 닮았다고 하여 頤卦라 한다. 頤卦의 註에 “頤 口旁也 口 食物 以自養 故 爲養義 爲卦 上下二陽 內含四陰 外實內虛 上止下動 爲頤之象”<sup>42)</sup> 또 “象曰 山下有雷 頤 君子 以慎言語 節飲食”<sup>43)</sup> 그 註에 “二者 養德 養身之 切務”<sup>44)</sup>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 이미 口의 生理作用으로 飲食을 받아 들이고 또 飲食으로 自養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또 養生의 面에서 慎言語 節飲食이란 표현으로 보아서 養生에 對한 기초적인 知識이 어느 정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頤卦 외에 人體의 名稱이 나타난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咸卦에서 “上六 咸其輔頰骨

九五 咸其脢

九四 居股之上 脢之下 註에 脢背肉 在心上而 相背

九三 咸其股 註에 股 隨足而動 不能自轉者也

六二 咸其腓

初九 咸其拇<sup>45)</sup>

또 艮卦에서는

---

註 42) 前掲書 p157

註 43) 上掲書 p158

註 44) 上掲書 p158

註 45) 上掲書 pp178~181

“六五 艮其輔

六四 艮其身

九三 艮其限 註에 限 身上下之 際 限 腰膀也

列其夤 夤脊也

六二 艮其腓

初六 艮其趾”<sup>46)</sup>

또 說卦傳에서는 “乾爲首 坤爲腹 震爲足 巽爲耳 離爲目 艮爲手 兌爲口”<sup>47)</sup>라 하였다.

以上과 같이 周易에는 人體 内部에 대한 言及은 없고 外部에 對한 言及만 있다. 그러나 當時에 이미 基本的인 生理學的 知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

註 46) 上掲書 pp291~293

註 47) 上掲書 p425

#### 4) 疾病의 發生 及 治療

黃帝內經에 나타난 疾病의 原因은 크게 나누면 個人的 精神狀態와 生活環境이다. 精神狀態는 怒喜思悲恐을 말하고 生活環境은 外部의 環境 特히 氣候의 變化로 표시할 수 있는 六淫을 말한다.

精神狀態에 대해서는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憂傷肺 恐傷腎”<sup>48)</sup>라고 하여 精神狀態가 五臟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生活環境에 대해서는 飲食不節 五味失調 飲酒過多 房事過度 過勞等を 疾病의 原因으로 들고 있다. 素問 上古天真論에서 飲食不節 飲酒過度 房事過度로 因하여 天年을 다하지 못한다고 하였고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酸傷筋 苦傷氣 等이 나오는데 이것은 五味失調에 관한 內容이다. 또 久視傷血 久坐傷肉은 過勞에 관한 기록이다. 또한 素問 異法方宜論은 生活環境에 따라 發生하는 疾病이 서로 틀리고 그에 따른 治療方法도 서로 틀려야 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以上과 같은 疾病의 原因이 있어도 個人的 內在的인 條件을 重要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內在的 條件에 따라 疾病이 發生하고 또 發生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靈樞 口問篇에 “邪之所在 皆爲不足”<sup>49)</sup>이라 해서 個人的 健康狀態에 따라서 疾病의 發生에 差異가 있다고 하였다.

病이 發生하는 순서는 外邪가 人體에 侵入하면 表에서 裏로 淺에서 深으로 邪氣가 들어 간다고 하였고 邪氣가 皮毛에 侵犯하면 皮毛에서 經脈으로 經脈에서 筋骨로 筋骨에서 五臟六腑로 들어 간다고 주장 하였다.

周易에서는 疾病에 대하여 직접 言及한 部分은 많지 않다. 그러나 周易에 나타난 文章에서 疾病의 發生이나 治療와 關係 있는 것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註 48) 前揭書 p20

註 49) 上揭書 p326

精神狀態에 대해서는 損卦에 “象曰 山下有澤 損 君子 以懲忿窒欲”<sup>50)</sup> 그 註에 “君子 修身”<sup>51)</sup>이라 하여 欲心을 막고 忿怒를 삼가하는 것이 損害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니 여기서 말하는 損害는 疾病도 包含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보면 周易에서도 精神狀態를 平靜하게 가지는 것이 重要하다고 한 것을 알 수 있다.

또 履卦 初爻에 “初六 履霜 堅冰至”<sup>52)</sup>라 하여 조짐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 일이 일어날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邪氣가 表에서 부터 裏로 들어 간다고 하는 것과 相通한다.

또한 困卦 九二爻에 “九二 困于酒食 朱紱方來 利用亨祀 征凶無咎”<sup>53)</sup>라 하고 註에 “困于酒食 厭飫苦惱之意 酒食 人之所欲 然 醉飽過宜則 是反爲所困矣”<sup>54)</sup>라 하였으니 이것은 飲食不節과 飲酒過多를 경계한 말이다.

周易에서 직접 疾病에 對하여 言及한 것은 无妄卦 이다 이것을 참고로 당시의 疾病과 治療에 對해 살펴보자.

无妄卦 九五의 爻辭에

“九五 无妄之疾 勿藥有喜”<sup>55)</sup>

註에는 “乾剛中正 以居尊位而 下應亦中正 无妄之至也 如是而 有疾 勿藥而自愈矣”

56)

또 “象曰 无妄之藥 不可試也”<sup>57)</sup>

註에는 “既已无妄而 復藥則 反爲妄而生病矣 試謂 少嘗也”<sup>58)</sup>라 하였다. 无妄이란

註 50) 前掲書 p227

註 51) 〃 〃

註 52) 上掲書 p24

註 53) 上掲書 p262

註 54) 上掲書 p262

註 55) 上掲書 p151

註 56) 上掲書 p151

註 57) 上掲書 p151

註 58) 上掲書 p151

망녕됨이 없는 狀態를 말한다. 卽 无思 无爲 无我之境 이다. 다시 말하면 大自然에 順應하는 그대로를 말한다. 그러므로 이 爻의 뜻은 망녕됨이 없는 病 卽 无妄之間에 오는 疾病은 하늘이 주는 病으로 藥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象에서 藥을 使用하지 말라 한 것은 합부로 藥을 쓰는 것을 경계한 것이다. 周易折中에서 “偶有疾則 亦順其自然而 氣自復 勿復用藥”<sup>59)</sup>이라 했으니 이것을 보면 自然에 順應하면 藥을 使用하지 않아도 疾病이 낫는다고 생각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당시에는 아직도 醫學的 知識이 不足하여 藥을 使用하는 것을 신중히 하였다고 생각 할 수 있다. 이 時代의 疾病에 對한 인식과 治療方法을 書傳에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書傳 金縢篇에 있는 周 武王의 疾病治療에 關한 기록을 보면 “惟爾元孫某 鴻厲虐疾 苦爾三王 是有丕子之貴于天 以且 代某之身”<sup>60)</sup> 註에 “元孫某 武王也 鴻遇厲惡 虐暴也 丕子 元子也 且 周公名也”<sup>61)</sup>

이것은 武王의 疾病을 낫게 하고 周公인 나로 대신 疾病을 앓게 해 달라고 祖上에게 기도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면 당시에는 疾病의 原因을 祖上에게 罪를 지었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疾病의 治療方法에는 藥의 使用보다 祖上에 對한 기도가 大部分 行해지고 있었다.

以上 살펴본 바와 같이 內經이나 周易이 모두 自然의 變化에 順應해야 身體를 保全하고 疾病이 發生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註 59) 汪日章外 周易折中 臺灣 商務印書館 p38~120

註 60) 前揭書 p276

註 61) 上揭書 p276

## 5) 養生

養生이란 疾病을 豫防하고 健康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라고 定義를 내릴 수 있다. 特히 內經은 養生을 重要하게 여기고 있으니 예를 들면 素問 四氣調神大論에 “聖人 不治己病 治未病 不治己亂”<sup>62)</sup>이라 하고 靈樞 百病始生論에 “邪不能獨復人”<sup>63)</sup>이라 하니 病이 發生 하기 前에 治療하는 것이 重要하고 또 疾病의 原因이 있어도 身體가 健康하면 發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養生의 方法에 對해서도 言及한 部分이 많으나 간단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所以聖人 春夏養陽 秋冬養陰 以徙其根”<sup>64)</sup>이라 하여 季節에 따른 養生法을 가르치고 있다. 또한 疾病의 發生原因을 精神的인 面과 生活環境 即 外部的 變化를 疾病의 原因으로 생각하고 있으니 精神的인 面은 素問 陰陽應象大論에 “怒傷肝 喜傷心 思傷脾 憂傷肺 恐傷腎”<sup>65)</sup>이라 하고 靈樞 本神篇은 “ 思慮傷心 憂愁不解傷脾 悲哀動中傷肝 喜樂無極傷肺 盛怒不止傷腎”<sup>66)</sup>이라 하였다. 이것은 지나친 感情이 五臟六腑를 傷하게 한다는 뜻이다. 生活環境은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起居不節 飲食不節 飲酒過多 等を 疾病의 原因으로 생각하고 節度 있는 生活을 強調하고 있다.

以上の 것을 종합해 보면 內經에서 주장하는 養生의 方法은 天地自然의 變化에 順應하고 節度있는 生活을 維持하는 것이다.

---

註 62) 前掲書 p10

註 63) 上掲書 p358

註 64) 上掲書 p10

註 65) 上掲書 p20

註 66) 上掲書 p299

周易에서 強調하는 것도 節度있는 生活이니 한마디로 한다면 懲忿窒欲이다. 損卦에 “象曰 山下有澤 損 君子 以懲忿窒欲”<sup>67)</sup>또 “九二 利貞 中以爲志也”<sup>68)</sup>라고 하여 忿怒를 삼가고 欲心을 내지 말고 修身을 하라 하였다.

이것을 살펴보면 酒와 食에 對해서는 需卦 九五의 象에 “酒食貞吉 以中正也”<sup>69)</sup> 困卦에 “九二 困于酒食 朱紱方來 利用亨祀 得凶無咎”<sup>70)</sup> 註에 “困于酒食 厭飲苦惱之意 酒食 人之所欲 然醉飽過宜則 是反爲 所困矣”<sup>71)</sup>라 하고 漸卦에서는 “飲食行衍吉 象曰 飲食衍衍 不素飽也”<sup>72)</sup>註에 “素飽 如詩言 素食 得之以道則 不爲倒飽而處之安矣”<sup>73)</sup>라 하였다.

이것을 보면 周易에서도 酒와 食을 節度있게 하는 것을 주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起居不節은 周易에서 자주 나오는 中正이나 不中正을 보면 알 수 있다. 中正 또는 不中正은 二爻와 五爻에 나오는데 陰이나 陽이 제 위치에 있고 없음을 말한다. 또한 지나친 것 卽 節도가 없는 것을 경계하고 있으니 乾卦에 “上九 亢龍有悔”<sup>74)</sup>라 하였으니 乾卦는 陽이니 上九란 陽이 너무 지나친 것을 말한다. 이것은 물론 사람의 地位에 對한 것이지만 養生에도 적용 할 수 있을 것이다.

四季에 順應하는 것은 節卦에 “天地節而 四時成 節而制度 不傷財 不害民”<sup>75)</sup> 이라고 하여 四時의 法에 따르면 害가 없다고 하였다.

이상을 살펴볼 때 內經과 周易에서 주장하는 養生의 道는 天地自然의 變化에 順應하고 節度있는 生活을 維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註 67) 世昌書館編 元本備旨 中庸集註 서울 世昌書館 p 9

註 68) 前掲書 p227

註 69) 前掲書 p228

註 70) 上掲書 p49

註 71) 上掲書 p262

註 72) 上掲書 p296

註 73) 上掲書 p296

註 74) 上掲書 p4

註 75) 上掲書 p328

## V. 結論

周易과 內經은 各各 東洋哲學과 東洋哲學의 理論을 根幹으로 한 韓醫學의 基本이 되는 冊으로 수천년 동안 東洋思想에 對해서 重要한 影響을 끼친 冊이다. 이에 論者는 이 두 서적의 基本的인 思想과 相關性을 比較하여 본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첫째, 自然과 人間의 關係에 對하여 內經과 周易이 모두 天地가 서로 感應하여 萬物이 化生하고 그 中에서 人間이 가장 尊貴하다고 하는 觀點에서 一致한다.

둘째, 周易과 內經이 모두 人間이 尊貴하다는 觀點에서 一致하지만 周易에서는 人間으로 行하여야 할 基本的인 道理가 있어서 尊貴하고 內經에서는 宇宙自然의 理致로 生成되고 變化하므로 尊貴하다고 하는 點에서는 차이가 있다.

셋째, 陰陽五行說에 있어서는 周易은 陰陽說을 根幹으로 하여서 事物의 變化와 發展을 說明하고 五行에 對해서는 具體的인 言及이 없는데 比해 內經에서는 陰陽五行說을 基本 理論으로 하여 人體에 應用하고 있다.

넷째, 周易에 나타난 解剖學的 內容은 人體 內部에 對한 言及은 없고 外部에 對한 言及만 있다. 그러나 當時에 이미 基本的인 生理學的 知識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다섯째, 養生에 對해서는 周易과 內經이 모두 飲食不節 飲酒過多 起居不節 등을 健康에 害로운 것으로 보았고 精神狀態를 重要하게 생각 했으며, 健康한 정신과 육체를 잘 保存하는 方法으로 天地自然의 變化에 順應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